

4/17/22

설교 제목: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고린도전서 15 장 12-34 절

- (고전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 (고전 15: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 (고전 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 (고전 15: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 (고전 15: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절관주** 요 8:21-24
- (고전 15: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절관주** 벰전 1:3
- (고전 15: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 (고전 15: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 (고전 15: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 (고전 15: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 (고전 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 (고전 15:27)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 (고전 15:28)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절판주** 요 14:28, 고전 3:23, 고전 12:6
- (고전 15: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 (고전 15: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절판주** 고후 11:26
-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 (고전 15:32)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 (고전 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 (고전 15: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모두 부활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의 삶에 인생 전부를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것에 궁극적인 인생 목표를 두고 삽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비단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0 여년 전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 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AD 57 년경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를 연결하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선박들이 헬라의 남단을 돌아가는 대신 지름길인 이 지협을 가로질러 다녔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였던 반면 성적으로 문란했고 도덕적으로 극심히 타락하여 마침내 '고린도' 하면 쾌락적이고 사치스러우며 방탕한 것의 대명사가 되어 '고린도스럽다'는 말까지 탄생시켰습니다.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 갈 수 있으면 복음이 들어 갈 수 없는 곳은 없다'는 말은 당시 고린도 상황을 잘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8 개월 정도 머물면서 온갖 반대와 어려움을 겪으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중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곧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인들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바람에 교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은 교회 내 파당 문제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결혼 음식 예배 부활 등등에 관한 것들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쟁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교회 내에서 쟁점이 된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것들의 치유책과 해결 방법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15 장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이슈들 중 부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장으로 불릴만큼 부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피력합니다.

(고전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문제는 초대 교회이자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듭니다.

(고전 15: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파하는 사도들은 헛것을 전파하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전 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전 15: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것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동안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겪은 것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은 망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전 15: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그의 부활로 입증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의 무죄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거짓이고 따라서 그의 속죄 사역이 부정되어 인간의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죽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 역사를 뒤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죽은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 자들은 아무런 보상과 위로가 없는 헛된 죽음을 죽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돈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쾌락 등 이생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고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고난도 받고 순교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언급한 후 부활의 순서에 대해 언급합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는 그 이치를 설명합니다.

(고전 15: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사망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원리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고 그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인류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고전 15: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는 하늘과 땅이 녹아 내리고 새하늘과 새땅 새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영광스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전 15: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전 15: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온 우주의 물질계와 영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원수를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는 사탄과 악령들과 그 도구인 세상의 악한 정권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이 멸망합니다.

(고전 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이미 정복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실제적으로 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질상 동일하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만물이 그의 이름 아래 꿇어 엎드리어 경배하도록 하는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이양되어질 것입니다.

(고전 15:27)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고전 15:28)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이 세상과 인류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냐고 반문합니다.

(고전 15: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부분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초대 교회의 한 잘못된 풍습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세례받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풍습이었지만 그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 다시 한 번 부활의 확실성을 피력합니다.

(고전 15: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2)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뭐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자신이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쾌락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내세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현세에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고전 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전 15: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당신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니 악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선하고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재림의 날 모든 인류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도 모두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의인은 천국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 곧 악인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의인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두 부류로 나누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는 자는 진정 복받은 자입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